

한국 학생의 미국 공립학교 교실수업 경험에 대한 생태학적 분석

정 한 호(플로리다주립대학교 박사후과정)

《 요 약 》

본 연구는 미국 공립학교의 다문화 교육 실태를 파악하고 한국 다문화 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활성화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생존, 조화, 변화를 기반으로 한 생태학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한국 학생의 미국 공립학교 교실수업 경험을 고찰하고 한국 다문화 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미국 플로리다 주 Leon County에 위치한 공립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한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학습 일지, 심층 면담을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결과, 미국 다문화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사회 전반적인 다문화 교육환경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교육환경의 영향으로 학교 및 교실에서의 다문화 교육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었다. 특히 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외국인 학생을 위한 ESL 프로그램은 다문화 학생뿐만이 아니라 언어능력이 떨어지는 일반 학생을 위해서도 실시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미국 다문화 교육은 특수한 교육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프로그램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자연스러운 다문화 교육, 함께 어울리는 다문화 교육, 다양한 활동을 통한 다문화 교육, 그리고 ESL과 같은 언어 교육 프로그램은 한국 다문화 교육의 정착을 위해 도입되어야 할 요소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학교 교육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배려와 인식은 다문화 교육 활성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문화 학생의 학교생활 및 교실수업 적응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 안내 및 특별 교육프로그램 미비는 한국 교육현실에도 시사하는 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교실수업, 다문화 교육, 교수-학습 방법, 생태학적 관점

I. 서론

교통 및 통신의 발달로 인한 세계화와 이로 인한 인구 이동의 증가는 전통적인 “국가주권, 국민, 국경 개념의 약화”를 초래한다(박성혁, 곽한영, 2008, p. 687). 유럽연합이나 미국과

달리, 단일 민족국가를 지향해 온 한국은 최근 이주 노동자, 국제결혼 이민자 증가로 인한 다문화 사회로의 변환과정에 있다(김홍운, 김두정, 2007; 김연희, 2007; 김완균, 2008; 오기성, 2008). 이와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를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한국도 다문화 국가로 진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심보선, 2007; 박재희 외, 2008; 권충훈, 김훈이, 2008; 고숙희, 2008). 그러나 한국은 국가차원의 다문화 정책 미흡으로 2007년 8월 유엔 산하 인종차별철폐위원회로부터 ‘민족 우월적 단일민족 개념’을 극복해야 한다는 권고를 받았다(고숙희, 2008; 추병완, 2008). 이와 같은 권고는 ‘단일민족국가’ 이미지를 극복하라는 의미로 볼 수 있지만, 한국의 다문화 현상을 “국제기구로부터 공인받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추병완, 2008, p. 110).

따라서 한국의 다문화 가정 2세들이 “한국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능력을 기르는 한편, 기존 사회 구성원의 문화적 충격과 차별적 의식을 완화시켜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박성혁, 곽한영, 2008, p. 688). 특히 정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장인실, 2006; 서혁, 2007; 김병순, 2008; 박성혁, 곽한영, 2008; 추병완, 2008). 최근 ‘다문화 교육’의 중요성 및 역할과 관련된 연구의 급격한 증가는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당연한 결과이다. 다문화 교육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진보적 입장에 터하여 다양한 문화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러한 차이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것임을 인식하도록 교육하는 것”이다(모경환, 황혜원, 2007, p. 82)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의 다문화주의 정책 및 다문화 교육은 “단일민족에 기초한 한국사회에 적응”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추병완, 2008, p. 112). 이에 따라 타 문화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하는 수용적인 자세와 자기 문화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교육(장인실, 2006, p. 27)을 통해 한국 학생과 다문화 학생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실수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문화 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면서, 다문화에 따른 사회적 측면(심보선, 2007; 김희선, 2007; 김연희, 2007; 김현희, 2007; 김문환, 2007; 이영주b, 2008; 이종순, 김종남, 2008; 고숙희, 2008; 김승환, 2008; 조현미, 2008)뿐만 아니라 교육법규(박성혁, 곽한영, 2008), 교육과정(장인실, 2006; 박재희 외, 2008; 박상철, 2008), 교사교육(장인실, 2003; 최충옥, 모경환, 2007; 모경환, 황혜원, 2007; 장인실, 2008; 추병완, 2008), 교수-학습방법(방금주, 김용희, 2008; 권충훈, 김훈희, 2008) 등으로 연구 분야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다양한 논의의 바탕으로 다문화 교육이 하나의 학문 영역으로 발전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8학년도부터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에 ‘다문화가정교육’ 전공이 개설되었으며 서울대학교는 중앙다문화교육센터를 설립하여 다문화 교육을 담당할 핵심 교원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박상철, 2008).

최근 국가 정책 차원에서, 다문화 학생의 교실수업 적응을 돕기 위한 다문화 학생의 실태

조사(조영달, 윤희원, 박상철, 2006) 및 각종 자료를 개발·보급하였으며(조영달 외, 2006) 효과적인 교수학습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오은순 외, 2007).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다문화 학생의 교실수업을 돕기 위한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있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07b, 전라북도교육청, 2008). 또한 다문화 학생의 교실수업실태(김병순, 2008; 박준성, 정태연, 2008), 정서 및 행동실태(남지숙, 박주희, 정진경, 2007), 그리고 인지적 특성(구효진, 최진선, 2007; 이영주a, 2008)과 같이 다문화 학생에 초점을 둔 연구들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개체가 겪는 문제점과 어려움을 개체 자체의 문제로 인식하기보다는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통해서 해석하는 생태학적 관점이 주목을 받고 있다(유영만, 2002; 박인우, 2003; Zhao & Frank, 2003; Lei, 2005; 김혜숙, 2006; 류지현, 2008). 생태학적 관점은 기존 연구와는 다른 차원에서 다문화 학생의 교실수업 생활을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며 학생 시각에서 다문화 교육 실태를 해석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생태학적 관점은 불완전한 의사소통, 학교생활의 어려움, 친구관계 형성의 어려움 속에서 다문화 학생이 어떻게 교실수업에 적응하고 변화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색 인종이나 소수 민족 학생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지원하며 이들의 교육활동 강화를 통해 하나의 미국을 만들어 가는 미국 공립학교의 교실수업 사례를 통해 한국 다문화 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국 공립학교에서 처음 생활하고 있는 한국인 학생의 학습 일지, 심층 면담을 바탕으로 미국의 교실수업을 탐색하였으며 생존, 조화, 변화를 기반으로 한 생태학적 관점으로 고찰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한국 학생의 미국 공립학교 교실수업 경험은 생존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2. 한국 학생의 미국 공립학교 교실수업 경험은 조화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3. 한국 학생의 미국 공립학교 교실수업 경험은 변화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미국 다문화 교육 개념 및 범위

미국 다문화 교육 범위는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된다. 다문화 교육의 개념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다문화 교육은 사회 계급, 인종, 성별로 인해 차별을 받는 소수 집단을 위한 교육이다. 집단의 계급 차이와 인종 차별의 심각성과 이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재건교육을 주장한 Sleeter와 Grant(2003)는 다문화 교육을 사회개혁적

인 차원의 문제로 보았다. 예를 들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집단들을 고려하여 모든 교육제도는 다시 수립돼야 하며 현재의 교육체제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개혁적인 교육자들에게 교육정책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leeter, & Grant, 2003, p. 195). 이와 같은 관점은 구조적 불평등을 개선하고 문화적 다원주의(pluralism)를 지향하는 다문화 교육을 의미한다(Freire, 1990). 또한 Sleeter & Grant(2003, p. 4)는 계층 조직 및 인권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인종, 계층, 모국어, 성별, 성 정체성, 장애”로 인해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소수 집단을 위한 활동을 다문화 교육으로 인식하였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의 다문화 교육은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 개선과 개혁을 통해 모든 집단 구성원들, 특히 역사적으로 소외를 당했던 집단 구성원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제공해 주는 사회개혁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둘째, 다문화 교육은 인종, 민족, 언어상의 차이뿐만이 아니라 개인이 지니고 있는 가정환경, 개성, 특성, 외모 같은 일반적인 차이까지도 인정하는 다양성 교육이다(Gurin, Dey, Hurtado, & Gurin, 2002; Maruyama, et al., 2000; Smith, & Schonfeld, 2000).

개인 간의 차이점들(differences)은 “자연스러움”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는 개인에게는 일반적(normal)이고 고정된(fixed) 것으로서 변화되기 쉽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성 교육은 모든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교육 현장에서의 다양성 교육은 모든 학생들이 차별 없이 학습하고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양성 교육은 “차이가 있는 다른 학생이나 집단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다른 관점의 차이를 존중하며 열린 마음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건전하고 다양성이 인정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양성은 예의바르고 바람직한 태도를 의미하며 학교 안에서 지속적으로 퍼져나가야 하는 통합 모형(Corporate Model)의 가장 핵심적인 구성요소이다(Hu-DeHart, 2003, p. 2).

이와 같이 학생 개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이를 위한 올바른 태도 함양을 강조하는 교육은 상대적 차별을 받는 사회 계급이나 인종에 초점을 두고 실시하는 다문화 교육과 의미상 차이가 있다.

셋째, 다문화 교육은 소수 집단을 위한 교육과 모든 학생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통합적인 개념이다. Bell과 Griffin(1997)은 개인차나 소속 집단의 정체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적합한 학습활동(다양성)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면 이를 통해 제도적 사회 정의를 실현시킬 수 있다(소수 집단)고 보았다. 예를 들어, 학생을 지도할 때는 모든 학생들의 다양성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과 소수 집단 학생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았다(Bell & Griffin, 1997). 이와 같은 관점에서의 다문화 교육은 일반 학생과의 관계 속에서 보다 효과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강조한다.

Banks(2001)는 다문화 교육을 “하나의 아이디어(idea), 교육개혁운동(educational reform movement), 그리고 이를 위한 하나의 과정(process)”이라고 하였다(Banks, 2001, p. 2). Banks의

다문화 교육 개념은 인종이나 민족에 따른 차이뿐만 아니라 언어, 종교, 성, 사회 계급, 나이, 그리고 장애 정도에 따른 차이까지도 인정하고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소수 집단과 다양성을 지닌 일반 학생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실시되는 미국 다문화 교육의 개념, 역사, 그리고 정책과 관련된 사례들은 한국의 다문화 교육 개념 형성에 도움을 주었다. 김선미(2000)는 다문화 교육을 서로 다른 다양한 문화들을 동등하고 가치 있게 여기며 그 안에 속한 구성원들의 입장을 올바로 이해하려는 노력으로 보았으며 장인실(2008)은 평등 교육, 교육과정 개혁, 다문화적 능력, 그리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으로 정의 하였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다문화 교육은 정치, 인종, 사회 계급에 따른 소수 집단의 학생을 위한 학습 활동이며 이와 같은 활동이 올바로 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적절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모든 학생이 소정의 학습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학생 차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 교육은 학생의 인종, 종교, 성별에 따른 불이익 없이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며 언어, 문화, 장애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학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적합한 학습 환경 제공을 통해 모든 학생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이다.

2. 한국의 다문화 교육

가. 사회적 측면

1992년 국가 차원에서 추진된 세계화 선언으로 인한 자본시장과 노동시장 개방,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와 외국인 노동자 증가, 그리고 국제결혼 증가로 가속화된 다문화는 일반적인 사회적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다(김현희, 2007; 김홍운, 김두정, 2007; 이종순, 김종남, 2008; 오기성, 2008). 그러나 국내 거주 외국인들은 사회정체성(양영자, 2007; 고숙희, 2008; 박상철, 2008)과 사회복지(김연희, 2007; 김희선, 2007; 서혁, 2007; 조현미, 2008)와 같은 사회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원칙 및 제도 수립을 통해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도와 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곽준혁, 2007, p. 17). 예를 들어 다문화 가족지원법이나 국적법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는 개혁적인 의견(이영주b, 2008)이나 한국 현실을 고려한 합의를 통한 점진적인 실시를 주장하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박성혁, 곽한영, 2008). 또한 김홍운과 김두정(2007, p. 168)의 주장처럼, 학비 및 급식비 지원이나 이들을 위한 “대안학교 운영”과 같이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조현미(2008)에 의하면,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다문화 지원 사업의 효과는 미비한 것으

로 나타났다.

군청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있고 가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러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현행의 프로그램보다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좀 더 살펴보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조현미, 2008, p. 360).

또한 다문화 지원이 각 기관 간의 사전 조율 없이 중복적으로 실시되고 있었으며 기업 홍보 차원에서 단기간 실시되고 있었다(김희선, 2007). 이와 같이 사회적 측면에서 실시되는 다문화 지원 사업은 수혜자 입장이 아니라 지원자 입장에서 실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교실수업 측면

교육인적자원부¹⁾ 및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실수업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제 결혼가정 자녀나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교실수업 적응을 위한 교육지원 대책, 다문화 교육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실태조사(조영달, 윤희원, 박상철, 2006), 교실수업에서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있다(조영달 외, 2006). 또한 국가 수준의 다문화 교육을 학교단위로 파급하기 위한 핵심교원 양성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와 관련된 연수 자료를 보급하였으며(심봉섭, 모경환, 이경수, 2008) 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효과적인 교실수업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오은순 외, 2007). 특히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일반 학생들의 편견해소를 위한 장학 자료를 개발하여 일선 학교에 보급하였으며(2007a) 다문화가정 자녀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지도 자료를 개발·보급하였다(2007b). 또한 전라북도교육청(2008)에서는 다문화 가정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및 교실수업 적응을 돕기 위한 자료를 개발·보급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은 실제적인 교실수업 지원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주었다.

이와 같은 국가차원의 지원이 교실수업을 통해 효과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문화와 관련된 교수-학습 방법 구현, 올바른 인식, 다문화적 능숙함과 같은 교사 능력이 요구된다(추병완, 2008). 그러나 교사들의 다문화적 효능감은 낮은 수준이며(최충욱, 모경환, 2007) 교사들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 및 효능감 향상을 위한 적절한 교사직전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의 운영도 미비한 실정이다(모경환, 황혜원, 2007). 또한 다문화 학생들은 짧은 대화나 혼잣말로 인해 친구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으며 이로 인해 혼자서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김병순, 2008). 이와 같이 다문화 가정의 불완전한 언어 및 문화적 환경은 다문화 학생들의 교실수업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구효진, 최진선, 2007).

1) 2009년 현재의 명칭은 교육과학기술부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인용된 자료가 발간된 시기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다문화 학생의 현실을 고려한 다문화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장인실, 2008). 예를 들어, 일상생활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김영옥, 2002), 일반 학생들의 다문화 이해교육(정지현, 2006), 효과적인 교수-학습 모형(권충훈, 김훈희, 2008)과 같은 실제적인 측면에서 교실수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다문화 학생의 학습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한글 특별반 운영(서혁, 2007), 한국어 습득 교재(조수진, 윤희원, 진대연, 2008), 외국인 어머니를 위한 한국어 교육(김민화, 신혜은, 2008)과 같은 언어학습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첫째, 다문화 가정에 경제적 행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지원방안 마련, 둘째, 교실수업에서 다문화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교육과정, 한국어 교재, 교육프로그램,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 셋째, 교실수업에서의 교사 활동, 교사 교육과정, 그리고 교사 인식 개선, 넷째, 다문화 학생의 정서 및 적응, 인지적 특성 등과 같은 학생 측면의 문제 고려, 다섯째,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다문화 교육프로그램이 교실수업에서 효과적으로 실현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다문화 학생의 시각에서 교실수업에서 겪는 어려움과 문제점이 무엇이며 이들이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교실수업에 적응하며 변화하게 되는지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다문화 교육 관련 선행연구들을 분류하여 나타내면 <표 1>과 같다.

<표 1> 다문화 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 분석

분류	연구 영역	주요 내용	연구자
사회 문화적 측면	현황 및 배경	다문화 사회 현황	김현희(2007) 김홍운, 김두정(2007) 이종순, 김종남(2008)
		다문화 사회의 특징	박상철(2008) 광준혁(2007) 김문환(2007) 김연희(2007) 김홍운, 김두정(2007) 김완균(2008) 이종순, 김종남(2008) 조현미(2008)
		다문화 정체성	박상철(2008) 양영자(2007)
		다문화 교육 및 문제점	김연희(2007) 김희선(2007) 서혁(2007) 김홍운, 김두정(2007) 고숙희(2008) 조현미(2008)
	개념	다문화 교육 개념	김선미(2000) 이지영(2002) 권충훈, 김훈희(2008) 박상철(2008) 장인실(2008) 추병완(2008)
		외국의 다문화 교육 및 다문화 교육의 역사	김선미(2000) 장인실(2006) 이민경(2007)
	정책 및 법규	다문화 교육 정책	김홍운, 김두정(2007) 광준혁(2007) 김희선(2007)
		다문화 교육 법규	박성혁, 광한영(2008) 김홍운, 김두정(2007) 이영주b(2008)

〈표 1〉의 계속

교실 수업 측면	교육 과정 및 방법	다문화 교육 과정	장인실(2006) 김홍운, 김두정(2007) 박상철(2008) 권충훈, 김훈희(2008) 박재의 외(2008)
		한국어 교육	서혁(2007) 김민화, 신혜은(2008) 원진숙(2007) 조수진, 윤희원, 진대연(2008) 서울특별시교육청(2007b)
		교육 프로그램	김영옥(2002) 정지현(2006) 김홍운, 김두정(2007) 권충훈, 김훈희(2008) 김희선(2007) 오기성(2008)
	교사 측면	교수전략	김선미(2000) 이지영(2002) 오은순 외(2007) 방금주, 김용희(2008)
		교사 역할	추병완(2008) 서울시교육청(2007a) 심봉섭, 모경환, 이경수(2008)
		교사 교육과정	장인실(2003, 2008)
		교사 인식	모경환, 황혜원(2007) 최충옥, 모경환(2007)
	학생 측면	교실수업 적응	조영달, 윤희원, 박상철(2006) 김희태, 권영덕(2007) 김병순(2008) 박준성, 정태연(2008) 전라북도교육청(2008) 최미숙, 김경숙, 윤현숙(2008)
		정서 및 행동적 적응실태	남지숙, 박주희, 정진경(2007)
		인지적 특성	구효진, 최진선(2007) 이영주a(2008)

3. 생태학적 관점 및 선행연구

생태학이란 서로 어울려 존재하는 개체-개체, 개체-환경 간의 관계 및 상호작용에 대한 전체성(totality)과 양식(pattern)을 탐구하는 학문(Odum, 1975)이며 주어진 환경에서 유기체 간의 역동적 관계를 탐색(Wise, 1999)하는 과학적 탐구방법을 의미한다. 따라서 생태학적 관점은 상호관계 속에서 현상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일상적 지각경험을 다루는 데 적합한 방법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정한호, 2008). 생태학적 관점은 개체의 생태적 특성을 주변 환경이나 다른 개체들과 관련없는 독립된 특성으로 파악하기보다 다른 개체와 주변 환경에 영향을 주고받는 역동적 관계에서 해석하는 간 학문적 접근방법이다. Patterson(2004)은 협동 대 경쟁, 적자생존 대 공생, 조직화에 대한 이론, 그리고 고등교육 맥락에서 관찰되는 다양성을 통한 조화와 균형의 추구 등이 나타나는 생태계를 교육현실에 적용하여, 교육 환경은 하나의 생태계이며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을 바탕으로 한 교육이론과 개념, 그리고 교실수업에 대한 묘시는 생태학적 관점을 통해 파악될 수 있다고 하였다.

생태학적인 관점은 교실수업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해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Lukin(2005)은 교실수업에서 모바일 기술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한 탐색, Gu(2006)는 중국 ICT 정책의 문제점 분석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문제해결학습, ICT와 같은 새로운 교실수업방법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전통적인 수업방법을

고수하는 이유를 생태학적으로 규명한 박인우(2003)의 연구와 교실수업에서 나타나는 초임교사와 경력교사의 차이를 설명한 김혜숙(2006)의 연구는 생태학적 관점을 활용하여 교실수업을 분석한 대표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김혜숙(2006)의 연구는 교실수업을 직접관찰하고 이를 생태학적 관점에서 해석한 대표적인 질적 연구로 본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현재 미국 공립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여러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연구 대상자 수는 연구 목적과 실행 가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이지연, 2008, p. 134). 본 연구 목적은 교실수업에서 나타나는 학생 활동을 일반화하기보다는 주어진 사례 내에서의 상황적 특수성을 고려한 학생 실태를 체험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기 전, 미국 플로리다 주정부 산하 Leon County에 있는 24개 공립초등학교 홈페이지²⁾를 모두 검색하였으며 교실 환경, 학급 실태, 구성원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연구 문제 해결에 적합한 학생 1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미국 플로리다 주정부 산하에 있는 Leon County에 속해 있는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우정이라는 여학생이다³⁾. 우정이 학급의 홈페이지에는 다문화와 관련된 교실수업 활동이 비교적 자세하게 탑재되어 연구 대상을 선정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⁴⁾ 우정이가 재학 중인 Green 학교는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이 재학하는 비교적 규모가 큰 공립학교였다. 또한 스페인 문화 영향으로 스페인어 교육을 정규교과로 실시하며 우정이와 같은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특별 영어 수업을 매일 1시간씩 실시하는 다문화 교육에 비교적 관심이 높은 학교였다. 우정이 학급에는 아시아(Asia)계 3명, 백인(White) 14명, 흑인(Black) 6명, 히스패닉(Hispanic)계 2명 등 총 25명의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이 있으며 담임교사는 히스패닉(Hispanic)계이다.

2) http://sharepoint.leon.k12.fl.us/lcs/Web_Pages/SiteLinks.aspx

3) 이하에서는 우정(가명)이라고 지칭하였다. 우정이는 2년 예정으로 방문 학자인 아버지를 따라 미국에 오게 되었다. 우정이 부모는 이민도 고려하고 있다. 우정이는 2008년 9월(미국 신 학년 시작)부터 Leon County에 속해있는 공립학교에서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우정이의 신상 정보는 연구 결과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 대상자 보호를 위해 일부 수정하였다.

4) 연구 대상자의 학급 홈페이지에는 모든 학생들의 사진과 각종 교실수업활동 사진이 탑재되어 있었다. 또한 학급 일정 및 숙제 등과 같은 교실수업과 관련된 내용도 탑재하여서 본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로그인 하지 않고도 볼 수 있는 공개된 자료만을 활용하였다.

2.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사전에 우정이와 보호자 동의를 얻은 후 실시되었다. 본 연구는 우정이의 학교 생활을 일기 형식으로 작성한 학습 일지와 연구자와의 심층 면담을 바탕으로 실시하였다.

가. 학습 일지

우정이는 교실수업을 통해서 얻은 사실과 느낌을 거의 매일 정리하여 제출하였다. 우정이가 초등학생인 점을 고려하여 일정한 형식 없이 자유롭게 일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학습 일지를 체계적으로 작성하기 위해 연구실시 일주일 전에 일지 작성 및 제출 방법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였다. 학습 일지는 2008년 10월 6일부터 2008년 12월 19일에 걸쳐서 총 52회 작성하였다. 일부는 간단한 동시나 이야기 형식으로 하루의 경험과 느낌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한 주나 한 달의 경험을 나타낸 경우도 있었다.⁵⁾

나. 일반 면담

본격적인 면담에 들어가기에 앞서 교실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질문하는 일반 면담을 5차례 실시하였다. 일반 면담은 우정이의 교실수업 경험과 학교생활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면담 문항은 본격적인 연구 실시 전, 교실수업 전문가 2인과 다문화 학생 지도 경험이 있는 초등학교 교사 2인의 도움을 받아 학교 환경, 교실수업 환경, 학급 친구들과의 관계, 담임교사, 특별활동,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영어 수업과 관련된 총 6개 영역 24개의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일반 면담을 바탕으로 심층 면담을 위한 구체적인 질문과 연구 방향을 설계할 수 있었다.

다. 심층 면담

심층 면담은, 면담 시간과 횟수를 정하지 않고 면담 내용 및 결과가 포화점(point of saturation)에 이를 때까지 계속 실시하는 방법(Merriam, 1998; 이지연, 2008에서 재인용)으로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심층 면담은 연구 대상자 경험이 실제로 이루어진 직후 실시할 때, 보다 자세하게 재생할 수 있다고 한다(이지연, 2008; 정한호, 2008).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방과 후에 정기적인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우정이가 교실수업에서 특별한 사건이나 행사를 경험한 날 직후에도 실시하였다. 기간은 2008년 10월 20일부터 2008년 12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우정이 집과 기

5) 11월 말부터 있었던 추수감사휴가기간을 빼고 작성하였다. 일부는 하루나 이틀 후에 작성하기도 하였다. 또한 한 주간이나 한 달의 경험을 기록한 일지는 본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Green 학교의 방학은 12월 19일(금)이었기 때문에 연구기간도 여기에 맞추어 정하였다.

타 장소⁶⁾에서 일주일에 2-4회(20분-120분⁷⁾)에 걸쳐 총 29회(총 1430분) 실시하였다. 특히 2008년 12월 17일부터 2008년 12월 19일까지 3일 동안은 Green 학교가 오전 수업만 하는 관계로 방과 후에 집중적인 면담을 실시할 수 있었다. 면담의 모든 내용은 수기로 기록하였다.⁸⁾

심층 면담 초기에는 학습 일지와 일반 면담에서 나온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우정이가 교실수업을 통해서 느꼈던 사례들을 가장 단순하면서도 전형적인 내용으로 정교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Green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인(백인 1명, 히스패닉계 1명, 아시아계 1명)과 여러 차례에 걸친 간단한 대화는 본 연구의 객관성에 도움을 주었다.⁹⁾

심층 면담에서 사용한 질문의 예는 다음과 같다.¹⁰⁾ 예: “미국 교실수업이 한국과는 다르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줄래”, “선생님이 지시하는 사항을 알아듣지 못하면 어떻게 해?”, “친구들에게 물어본다고 했는데 주로 물어보는 친구는 누구야?”, “교실수업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점은 무엇이야?”, “그때 가장 많이 한 행동이 무엇인지 말해 줄래.”, “교실수업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활동과 친구 도움을 받아야 할 수 있는 활동으로 나눌 수 있어?”, “만약에 나눌 수 있다면, 그 기준은 무엇이야?”, “오늘 경험한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면 말해 줄래.”

3. 분석 방법

가. 자료 분석 틀

본 연구에서는 정한호(2008, pp. 36~37)가 질적 자료를 분석할 때 활용한 생태학적 접근방법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분석 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과 다른 문화 및 언어적 배경을 지닌 한국 학생이 경험한 교실수업의 어려움과 여기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생존 관점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한국 학생이 미국 공립학교의 일원으로 담임교사 및 학급 학생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교실수업에 적응하는 모습을 조화 관점

- 6) 우정이가 초등학생인 점을 고려하여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패스트푸드 하우스, 특히 M 햄버거를 좋아하여 그 곳에서 면담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 7) 초등학생과의 면담을 연구자의 의도대로 진행하기는 어려웠다. 이로 인해, 간단한 인사나 교실수업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짧은 응답만으로 종료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특별한 사건이나 재미있는 교실수업 경험이 있는 날에는 120분정도 지속되기도 하였다.
- 8) 면담을 실시하기 전에는 모두 녹취를 할 예정이었으나 초등학생인 관계로 녹취를 할 때, 평상시와는 다른 태도와 말투로 면담에 임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녹취보다 수기로 기록하였다.
- 9) 우정이의 친구들과의 만남은 연구를 실시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보호자로부터 본 연구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하여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지 못하였다. 다만 우정이로부터 파악한 사실이 타당한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 10) 우정이가 질문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보다 쉬운 단어를 사용하여 이해할 때까지 계속해서 추가 질문을 하였으며 상담이 진행되면서 이와 관련된 추가 질문의 횟수는 줄어들었다.

에서 분석하였다. 셋째, 다문화 교육을 지향하는 미국 교실수업을 통해 변화되는 모습을 변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나. 자료 처리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서술적 정독을 통해 7차례 정독하였으며 본 연구 문제와 관련된 초점이 점차 명확해지면서 3차례 집중적 정독을 통해 1차 분류하였다. 2차 분류는 교실수업을 생태학적으로 분석한 류지현(2008, p. 281)의 연구에서 활용된 개방코딩(open coding), 축코딩(axial coding), 선택코딩(selective coding)의 절차에 의해 실시하였다. 개방코딩은 수집된 사례로부터 개념을 도출하기 위한 범주를 의미하며 축코딩은 개방코딩에서 도출된 개념들의 관계적인 구조를 구성하기 위한 절차이다. 그리고 선택코딩은 도출된 개념을 중심으로 연구문제 해결을 위한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택코딩을 통하여 생존, 조화, 변화의 분석 틀로 연구문제를 해결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 1인을 통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제한적 상황으로 인해,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되는 사건과 동일하게 분석된 내용을 연구 결과에 기술하였다.

본 연구의 코딩된 자료 예는 <표 2>와 같다.

<표 2> 자료 코딩의 예

	생존의 관점	조화의 관점	변화의 관점
학습 일지	내가 마치 일 학년이 된 것 같다. 내가 교실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는 것 같다. 뭐든지 한국 친구에게 물어봐야 한다. 나 왜 이러지…….	오늘은 짬뽕과 간식을 나누어 먹었다. 짬뽕이 웃긴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준다.	친구들에게 자연스럽게 질문할 수 있다. 대답을 잘해주는 친구도 있고 안 해주는 친구도 있다. 미국도 한국이랑 다른 것 같지 않다.
심층 면담	한번은요. 복도에 한가운데 애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stop'표지판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점심을 먹으러 갈 때 맨 뒤에 있었는데 애들이 표지판이 있는 곳에 멈추는 것이에요. 전 혼자 그냥 갔지요. 얼마나 창피하던지…….	Reading Master 시간이 재미있어요. 선생님도 무척 친절하고요. 게임도 하고 선물도 줘요. 젤 좋은 것은 저랑 비슷한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말을 다 못하니까 마음이 놓여요.	여기도요 공부 잘해야 돼요. 말을 좀 못해도 공부 잘하고 쪽지시험 잘 보면 칭찬받아요. 말만 잘하는 애들은 인기 없어요. 처음에는 용기도 없었는데... 지금은 달라요. 제가 또 수학은 좀 하거든요. 영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져요. 크게 걱정 안 해요.

본 연구는 수집된 자료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4가지 노력을 하였다.

첫째, 수집한 자료 해석의 객관성을 위하여 심층 면담은 학습 일지, 일반 면담, 그리고 이전 심층 면담 자료를 바탕으로 실시하였으며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이전과 다르게 반응하는 경우에는 원인 파악을 위해 노력하였다. 둘째, 대비분석(contrast analysis)을 통해 동일한 사건에 대한 상반된 사례를 찾고 다른 사례들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교과서, 워크북, 공책, 각종 가정통신문, 그리고 담임교사 평가¹¹⁾ 등과 같은 자료들과 학교 및 학급 홈페이지 검색을 통해 학습 일지와 면담으로 탐색하기 어려운 학교정책, 교육과정, 교실수업 과정, 기타 다문화 관련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자료 분석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넷째, 교실수업 전문가 2인과 다문화 학생 지도 경험 교사 2인에게 연구 과정에 대한 타당성을 묻고 의견 청취를 하였으며 대학원에서 국어 교육을 전공하면서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육에 관심 있는 초등학교 현직 교사 1인에게 자료 수집 및 연구 결과 검토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생존의 관점

우정이는 미국에 오기 전부터 미국 교실수업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지니고 있었다. 엄마와 함께 자신이 공부할 학교 홈페이지를 탐색하였으며 영어공부도 평상시보다 열심히 하였다. 미국에서의 교실수업은 한국보다 어렵고 힘들 것이라는 부모 및 주변 어른들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곳에서 학교를 다니는 것에 대한 친구들의 부러움은 기대감을 높이기에도 충분하였다.¹²⁾

가. 기본적인 학교 생활의 어려움

우정이는 학년 및 담임 배정, 교과서, 그리고 각종 학교 안내 서류를 받은 다음 날부터 교실수업에 참여하였다. 한국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는 교실수업과 낯선 교실 분위기,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은 우정이가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또한 학교 및 교실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예를 들어 보건실 위치, 특별교실 위치, 쉬는 시간, 학교과제 제출방법, 복도 통행 방법, 당번 배정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나

11) 매 주 월요일에 Monday Folder라고 하여 일주일간의 생활 및 학업에 대한 담임교사의 평가

12) 우정이의 학습 일지와 심층 면담을 통해서 한국 초등학생들이 미국에서의 교실수업을 동경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안내가 없었다. 물론 이와 같은 정보는 교실 벽면과 교실 게시판에 안내되어 있었지만 교실 환경에 낯선 우정이에겐 도움이 되지 않았다.

아무도 나에게 (학교생활을) 설명해 주지 않는다. 눈치만 늘었다. 친구들이 움직이면 무조건 따라 간다. 힘들다. [학습 일지 2]

특별활동 과목이 매일 바뀌는데 아무도 저에게 설명을 안 해줘서 몰랐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톡 톡’치면 친구를 그냥 따라갔어요. 또 처음에는 맨 앞에 줄을 섰는데 다른 학생이 제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톡 톡’ 쳤더니 그 자리는 자기 자리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지만 개 역할이 ‘line leader’였어요. 맨 앞에 서서 길을 안내하는…….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말을 안 해주니……. [면담 2]

밖에서 ‘똑똑’ 하면 교실 문 열어 주는 친구를 보고 누구나 똑똑하면 문 열어주는 것인지 알고 누가 ‘똑똑’ 하길래 제가 나가서 열어 주었더니 그 친구가 와서 이것은 내 일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창피를 당한 적이 있어요. [면담 3]

가정통신문은 우정이에겐 커다란 숙제였다. 다른 친구들은 가정통신문을 보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바로 이해하였지만 우정이는 사전을 찾아가면서 해석을 하여도 의미를 파악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가정통신문이 오는 날(거의 매일)이면 우정이와 부모는 가정통신문 내용을 해석하고 그 의미를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예를 들어 할로인 축제 며칠 전에 우정이는 할로인 축제에 필요한 준비물에 관한 가정통신문을 받았다. 거기에는 음료수 만드는 데 필요한 ‘액상 색소’와 ‘생수 12병’을 준비해 오라고 적혀 있었다. 그런데 ‘액상 색소’가 문제였다.¹³⁾ 우정이는 부모님과 함께 W 마트에 가서 여러 사람에게 물어본 후 ‘액상 색소’보다 품질이 좋은 ‘색소 가루’를 구입해서 학교에 가지고 갔지만 그대로 다시 가지고 왔다. 담임교사가 요구한 것과 다른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오늘은 할로인 축제때 사용할 물건 (green+생수)을 사러 W마트에 갔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선생님께 물어보고 종이에도 적었는데……. 막상 사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헷갈렸다. 거기 직원에게 물어보고 했는데 뭘지 잘 몰라 대충 사왔다. [학습 일지 14]

나. 불완전한 의사소통

처음 몇 주 간은 교실수업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으며 학급 친구들과도 언어 문제로 인해 어울리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인 친구들에게 의존하였으며 점심시간에는 한국인 친구들과 보냈다. 물론 우정이의 교실수업을 도와 줄 미국인 친구들이 근처에 있었지만 도움이 되지 않았다. 미국인 친구에게 질문하려면 먼저 질문 내용을 생각한 후 모르는 단어를 사전

13) 학급마다 음식을 가져와서 한 학년 학생들이 식당에서 함께 나누어 먹는 행사를 실시하였다. 우정이가 학급은 개인별로 생수 12병과 여기에 타서 먹을 ‘액상 색소’를 가져오는 것이었다.

에서 찾아야 했다. 단어를 사전에서 찾다가 질문 내용을 잊어버린 적도 있었으며 영어로 된 미국인 친구의 답변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해 실수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교실수업에 대한 구체적 맥락을 모르는 경우에는 질문조차 할 수 없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What?’, ‘What?’ 하면서 여러 번 되물어서 그 의미를 이해하기도 했지만 매번 그렇게 할 수도 없었다. 이로 인해 우정이는 한국인 친구들에게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영어를 잘 못하는 게 가장 힘들었다. 또 친구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어도 단어가 안 떠올라서 말을 못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학습 일지 7]

특히 사회시간에는 모르는 단어가 많아서 전자사전을 통해서 찾아야 하기 때문에 힘들고요. 특히 시험을 볼 때는 사전을 볼 수 있지만 사전에 없는 단어도 많아요. [면담 9]

여기는 모든 학생들이 당번 활동을 해요. 그런데 선생님이 ‘뭐라 뭐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지적해서……. 다른 설명은 못 알아듣고, 오직 ‘table washer’밖에 알아듣지 못해서 그거 했어요, 그런데 그거 힘들어요. 지금은 다른 것 해요. [면담 12]

교사 설명 및 교실수업 중에는 질문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우정이는 수업시간 중에 친구에게 질문하다가 선생님에게 지적을 받아 행동 기록표에 표시된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은 경험 이후, 모르는 내용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질문을 할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해 교실수업 및 학교생활에 흥미를 잃어가고 있었다.

오늘은 소풍을 갔다. 하나도 즐겁지 않았다. 모르는 말, 설명, 영어 어렵다. 그런데 아침에 선생님이 우리 도시락을 모두 걷었다. 난 다른 친구들과 달리 도시락을 런치 백에 넣었기 때문에 런치 백을 통째로 주었다. 점심시간이 1시 쯤 이었는데 간식도 모두 런치 백에 있어서 그 때까지 아무것도 못 먹었다. 물도, ππ. 왜 이런 사실을 아무도 말 안 해주는 걸까……. 이제부터는 하루 전에 미리 물어봐야겠다. 그런데 질문하는 것도 쉽지 않아 걱정이다. [학습 일지 7]

다. 친구관계 형성의 어려움

우정이는 미국 친구들이 자신을 환영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했지만 기존 학생들의 ‘무관심’은 우정이를 혼란스럽게 하였다. 또한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은 우정이와 학급 친구들 사이의 관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예를 들어 점심시간에 한 가지 놀이(술래잡기)¹⁴⁾만 하는 미국 학생들이 우정이의 시각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우정이는 한국인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었으며 한국인 친구는 점차 우정이에게 절대적 존재가 되어 가

14) Green 학교 운동장은 넓은 잔디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학년 학생에게 적당한 운동기구는 없었다. 이로 인해 남학생들은 주로 미식 축구, 여학생들은 술래잡기를 하였다. “여기 재미없어요. 맨날 술래잡기만 해요. 그래서 전 요즘 도서관에 가서 책 읽어요.” [면담 6]

고 있었다. 교실수업 1교시부터 학교버스로 하교할 때까지 한국인 친구들과 한국말을 하며 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한국인 친구들과 지속적으로 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반복되는 질문과 점차 의존적으로 변하는 우정이 태도와 이에 대한 한국인 친구들의 우호적이지 못한 반응을 경험한 이후부터 한국인 친구들과도 점차 소원하게 지내게 되었다.

한국 친구들이 나를 귀찮게 생각하는 것 같다. 한 번은 옆에 있는 한국 친구에게 수업 내용을 몰라 물어보았는데 대꾸도 안하는 것이다. [학습 일지 12]

라. 교사 노력

교사는 우정이 자리를 자신의 책상 옆, 칠판 바로 앞에 배치하여 수시로 우정이 상태를 점검하였으며 우정이의 학교생활과 교실수업을 도와줄 미국인 친구들을 주변에 배치시켰다. 또한 담임교사는 우정이에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문의하라고 하였다. 또한 교실수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안내되었다. 예를 들어, 학교행사, 현장체험학습, 특별활동 등과 관련된 안내는 실시하기 전 수 차례에 걸쳐서 안내하고 부모 확인을 받았다.¹⁵⁾

선생님이 (수업)말을 다 끝내고 나서 선생님 책상으로 돌아가세요. 그러면 제가 손을 드는데 그러면 선생님이 저를 못 봐요. 그러면은 제가 선생님 책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에게 숙제나 모르는 것을 물어보면 친절하게 대답해 줘요. [면담 11]

그러나 우정이 이외에도 24명의 학생을 지도하는 담임교사는 우정이게만 집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우정이 학급에서는 매주 금요일에 영어 단어시험(Open Court)¹⁶⁾을 실시하였지만 우정이는 이 사실을 한 달 후에 알 수 있었다. 알림장 및 홈페이지에 안내가 되었으나 ‘Open Court’가 시험을 의미한다는 것까지 안내해 주지 않았다. 또한 담임교사는 스쿨버스에 대해 안내를 실시하였지만 구체적 내용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예를 들어 스쿨버스로 학교에 일찍 도착해도 학교식당에서 8시 5분까지 특별한 활동 없이 대기해야 된다는 사실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¹⁷⁾ 이와 같은 경험으로 우정이는 승용차로 등교하였으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등교할 때는 승용차, 하교할 때는 학교버스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

15) 교실수업시간에 비디오 시청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가정통신문을 보낸다.

16) 성적표에 기록되는 공식적인 영어시험이다.

17) Green 학교의 등교시간은 오전 8시 5분 - 10분 사이였으며 그 시간 전후 등교 했을 경우에는 교실에 바로 입실 할 수 없었다.

학교에 일찍 도착해도 할 일이 없이 그냥 식당에 앉아 있다. 나는 이 사실을 몰랐다. 한국학교는 8시 40분까지 등교 시간이지만 미국학교는 8시 10분까지 등교시간이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아이들은 공부를 중학교처럼 많이 안 해도 되기 때문이고,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부모님이 일찍 일하러 나가니까 초등학생들을 집에다가 혼자 있게 할 수 없어서다. 그렇지만 중, 고등학교같은 경우는 혼자 있어도 안전하니까 학교에 늦게 간다. 그리고 한국학교에서는 언제나 학교에 차를 타고 오지 말라고 하지만, 미국학교에서는 당번 학생들이 자동차 문도 열어 준다. (학습 일지 23)

마. 우정이 노력

학교 생활의 어려움, 친구들과의 소원한 관계의 근본적인 원인이 불완전한 의사소통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우정이는 단어 외우기, 영어일기쓰기, TV 시청, 그리고 부모님과 영어로 대화하기 등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

하루에 20분씩 리틀** (한국 영어교육사이트)에서 영어공부하고요. 빨간머리앤 동화 들
고 단어공부하고……. 한국에서 가져온 영어책을 가지고 한 시간, 수학 1시간정도 해요.
그리고 일기 써요. (면담 10)

특히 주변의 한국 유학생들과의 만남과 조언은 우정이의 학교생활에 도움이 되었다.¹⁸⁾ 또한 미국인 친구를 사귀게 되면 교실수업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변의 조언을 통해, 우정이는 미국인 학생들과 대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이름을 부르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경험한 후, 학급의 학생들 이름을 모두 외웠다. 또한 점심시간이나 놀이 시간에는 ‘Hi’ 하면서 먼저 대화를 시도하였으며 방과 후에 학교버스를 타고 오면서도 미국인 학생들과 대화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우정이는 ‘대화 주제, 내용, 못 알아들었을 때 묻는 말, 그리고 예상 답변’까지 미리 준비한 이후에 대화하였다. 이로 인해 초반기의 대화는 부자연스럽고 어색하게 진행되었다.

2. 조화의 관점

우정이는 얼굴표정이나 몸짓으로도 간단한 의사전달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체득하고부터는 몸짓(body language)을 통해서도 의사소통을 하였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특별활동이나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은 우정이의 교실수업 적응에 도움을 주었다.

18) 특히 ‘영어를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용기를 가져라, 새로운 단어를 매일 하나씩 외우고 직접 사용해 봐라’와 같은 조언은 우정이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가. 특별활동과 ESL

우정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수학과 ‘Special Area’라고 지칭되는 특별활동이다. 한국과 동일한 계산 부호, 비교적 쉬운 문제는 수학시간에 우정이의 존재를 친구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또한 매일 한 시간씩 교대로 실시되는 특별활동 시간(미술, 음악, 컴퓨터, 체육 등과 같은 예체능 교과)은 교실수업 적응에 도움이 되었다. 우정이는 그리기, 컴퓨터, 피아노, 달리기 등에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활동 시간에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다. 특히 10월 초순부터 참여하게 된 ESL(읽기, 말하기, 쓰기)은 우정이의 교실수업 적응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¹⁹⁾ 자신과 비슷한 수준에 있는 학생들과 공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정이에겐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다.

부진아들을 위한 리딩마스터(Reading Master)가 있는데, 나, 중국 학생 1명, 미국 학생 4명이 있다. 리딩마스터는 학년 전체에서 못하는 사람이 하고, 읽고, 쓰고, 듣고, 또는 그림 그리면서 선생님이 읽어주시는 책을 듣는다. 선생님이 친절하셔서 재미있게 다닌다. 또 매주 목요일은 사탕을 받고, 금요일은 아예 안 간다. 어떤 학생은 말을 유창하게 하면서도 글씨를 잘 못 써서 오는 애들도 있고, 말도 잘 못하는 아이들도 있다. [학습 일지 29]

미국 공립학교에서의 특별활동, ESL은 우정이와 같은 다문화 학생의 교실수업 적응에 도움을 주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일반 학생의 학습능력을 증진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다. 예를 들어 특별활동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으며 쓰기 능력이 부족한 미국 학생들도 ESL을 통해서 기초 영어 학습을 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우정이는 외국인 학생이라는 인식보다는 언어, 특히 영어 능력이 부족한 학생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으며 ESL을 통해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 연습

우정이는 교실수업 경험을 통해 미국 공립학교의 교육내용 자체는 한국과 큰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특히 수학은 한국보다 쉬웠으며 예체능 교과는 평가가 없기 때문에 부담이 없었다. 그러나 사회 교과는 미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하였으며 과학 교과의 용어는 생소하여 어려웠다. 이에 우정이는 교실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인터넷을 활용하여 내용 및 자료를 검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습을 하였다. 또한 교실수업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일정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기본적 생활을 위한 교실 영어를 집중적으로 학습하였다. 특히 말을 잘하는 것보다 글을 잘 쓰는 학생이 인정이 받는다는 사실을 체험하면서 매일 2페이지씩 영어 일기를 작성하였다. 처음에는 연습을 하는데 2-3시간 정

19) Green 학교에서는 Reading Master라는 명칭으로 운영되었다.

도 필요했지만, 시간이 흐름면서 점차 감소하였다.

사회는 하나의 책으로 두 명이 같이 본다. 프로젝트가 만약 있으면 책에 찾아서 답을 찾는다. 또 책을 번갈아 읽는다. 4일 뒤에는 시험을 보는데 어려운 문제도 있고 쉬운 문제도 있다. 거의 어려운 문제는 서술형 문제나 그림을 그려보라는 것이다. 거의 사회는 어려운 게 많아서 예를 들어, 'james town은 어디에 속해있습니까?' 아니면 'middle colonies에 속해 있는 것을 쓰시오.' 이와 같은 문제들은 어려워서 메모해 두어야 한다. [학습 일지 28]

매 단원의 첫 시간에는 담임교사가 단원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과 사전 지식을 설명하고 질문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것에 맞는 수업준비를 하였으며 평가가 있는 과목의 시험 전 날에는 평가 준비를 통해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었다. 또한 한글로 된 교육 사이트가 우정이의 연습에 큰 도움이 되었다. 연구 결과, 다문화 학생의 적응을 위해서는 모국어 교육을 통한 학습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다. 차이 인정의 중요성

우정이는 자신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부터 학교생활 및 교실수업을 조화롭고 균형 있게 수행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미국인처럼 행동하고 생활하는 것이 미국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은 한국인이며 미국인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었다. 또한 이와 같은 인식은 우정이의 교실수업 적응에 도움이 되었다. 이전에 Green 학교에서 생활을 했던 한국 학생이 미국 친구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쳐 주었다는 짝꿍의 말을 듣고 자신도 미국 학생들에게 '안녕, 잘 가, 고마워' 등과 같은 한국말을 가르쳐 주었다. 또한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을 때, 무의식적으로 "엄마야!"라고 표현을 했는데 친구들이 그 뜻을 궁금해하여 '모든 단어와 body language'를 동원하여 설명을 해주었더니 재미있다고 하면서 따라 하기도 하였다.

솔직히 예전 에는요. 영어를 못하면 머리가 나쁜 줄 알았어요. 한국에서는 그러잖아요. 넌 그것도 못하냐고 하면서요. 처음에 여기서 제가 영어를 못해서 제가 머리가 나쁜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애들도 한국말 못하는데요. 용기가 생겨요. 저도 시간이 지나면 영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면담 14]

라. 친구 만들기

미국 이주 초기, 우정이는 한국인 친구들과의 관계를 중시하였고 그들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높았다. 이로 인해 미국 친구들과 친해질 기회가 없었으며, 한국인 친구들이 자신과 놀아주지 않거나 자신의 질문이나 궁금한 것에 대답을 잘해주지 않을까봐 눈치를 보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교실수업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우정이는 미국인 친구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교실수업에 활력을 얻을 수 있었다.

불완전한 의사소통으로 인한 자신감 결여로 미국 친구들과 대화를 하려면 ‘침이 마르고 발음이 꼬이고 더듬거리던’ 현상도 ‘못 알아들으면 물어보면 되고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으면 얼굴표정이나 행동’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한 예상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경험하면서 적극적인 자세로 미국 친구들에게 접근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 교실수업자체에 대한 질문보다는 일상 대화시도를 통해서 미국인 학생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교실 수업에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서로 아무 말도 없었는데.. 시간...지나면서.. 짹짹이랑..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 하고.. 모르는 것 있으면 잘 물어보고.. 간식 나눠먹고.. 다양한 규칙 (땀방 안 밟고 다니기, 세 번만 밟고 다니기, 술래가 눈감고 다니기)의 술래잡기를 하면서 친해지게 되었어요. [면담 21]

3. 변화의 관점

우정이는 예습을 통해 미리 수업 준비를 하여도 교실수업 중에 발생하는 교사와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교사 노력, 특별활동, ESL, 미국 친구들과의 관계, 여러 방면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미국의 교육환경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가. 끊임없는 질문

우정이에게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친구들이나 선생님께 질문하는 습관이 생긴 것이다. 특히 정확하지 못한 우정이의 발음에 집중하고 반응하는 일부 미국 학생과 어려운 상황에서 습득한 경험은 우정이의 학교생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한국에서는 당연히 행동했던 것도 이 곳에서는 낯설고 모르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정이와 같은 다문화 학생에게 질문은 의사소통의 중요한 수단이었다. 질문을 할 때는 한 명에게 3번 이상 질문을 하면 ‘nothing’하면서 더 이상 대답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 때문에 우정이는 질문할 학생들을 마음 속에 미리 정해놓고 번갈아 가면서 하였다.

한국에 있을 때는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질문을 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냥 “선생님 오늘 체육 안 해요”, “숙제 적게 내주세요!” 아니면 친구들에게 “오늘 끝나고 뭐해?”, “학원 끝나고 만나자”와 같이 일상적인 내용이었는데……. 지금은 특별교실 찾는 것부터 숙제, 가정통신문 내용, 모르는 단어.... 뭐든지 다 물어봐야 되요. [면담 26]

미국 애들은요 이름을 불러줘야 해요.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옆에 있어도 아는 척을 안 해요. 일부러 그러는 것 같기도 하구요. 이름을 불러도 대답을 안 하는 친구가 있어서요. 이렇게 어깨를 흔들거나 책상을 두드리거나 하면서 이름을 불러줘야 해요. [면담 26]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다문화 학생 질문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과 태도 함양을 위한 소양교육의 필요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나. 학습에 대한 태도

학교생활 및 교실수업에 조금씩 적응해 나가면서 우정이는 학습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었다. Green 이전에는, 미국에서의 교실수업은 숙제도 없는 자유로운 분위기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Green 학교 첫 날부터, 우정이에게는 다른 학생과 동일한 과제 및 숙제가 부과되었다. 이로 인해 우정이는 혼란을 겪게 되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 학생들과의 원만한 관계는 학교생활 및 교실수업의 활력소는 되지만 그 자체에 크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사교적이고 친구들과 잘 지내도 교실수업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학습에 문제가 있으면 인정을 받지 못하는 미국 교실수업의 분위기는 한국과 비슷하였다. Green 학교의 교실수업도 한국과 동일하게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과 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나타낸 학생을 존중해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른 점이 있다면, 학습결과에 대해서 순위를 매기거나 다른 학생과의 비교를 통한 평가가 아니라 학습 목표 도달 여부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우정이는 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방과 후에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보다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점차 늘어나게 되었다.²⁰⁾ 이와 같은 우정이의 변화는 연구를 시작하기 전과 연구 초반에는 전혀 예상을 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말만 잘하고 글 못 쓰는 것 보나요 말을 더듬거리지만 글을 잘 쓰는 학생이 더 칭찬을 받아요. 저도요 말은 잘 못하지만요. 수학시간에 칭찬받아요. 제가 좀 어려운 문제도 풀거든요. [면담 28]

연구 초반에는 주로 학생들과의 관계를 통해 학교생활을 묘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정이는 학습 내용과 교사 지도방법, 그리고 ESL에서의 학습을 바탕으로 학교생활을 묘사하였다. 초기에는 한국 학생들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자신의 질문과 행동에 따른 다른 학생들의 반응과 정체성 인식을 통해 교실수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또한 교사의 칭찬은 우정이의 학생 생활의 큰 활력소로 작용하였다. 이와

20) 특히 자신의 활동에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봉사하는 유학생 언니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았다.

같이 효과적인 다문화 교육을 위해서는 학습능력 신장에 도움을 주는 언어프로그램이 필요하며 학생의 행동에 대한 칭찬과 격려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TV 시청에 대한 태도 변화

우정이는 TV를 통해, 미국문화 및 영어학습에 도움을 받고 있었다. 특히 매일 저녁의 시트콤과 토요일 오전에 방영하는 어린이 프로그램은 미국문화 이해에 도움을 주었으며 간단하고 쉬운 단어 및 문장으로 이루어진 어린이 프로그램은 우정이의 언어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 또한 TV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한 단어를 일상생활과 적용해 보거나 학교에서 친구들과 이와 관련된 간단한 대화를 통해 영어를 보다 효과적으로 익힐 수 있었다.

‘impossible과 possible’을 만화를 보면서 익혔다. 주인공이 행동을 하면 이 단어가 나타난다. 재미있다. [학습 일지 48]

토요일 오전에는 만화영화, 오후에는 미식 축구를 본다. 솔직히 처음에는 영어공부하려고 보았는데, 지금은 재미있는 거만 골라본다. 계속 보다보면 무슨 내용인지 알게 된다. 신기하다. 미식 축구! 정말 무식하다. 점수 내는 방법도 간단하다. 무조건 공 가지고 뺏기지 않고 달려가면 된다. 근데 재밌다. 막 잡고 뭉개고. [학습 일지 49]

V. 결론 및 제언

연구 결과, 미국 다문화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사회 전반에 걸쳐서 실시되는 자연스러운 교육환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교과서 사진이나 삽화, TV 드라마(만화) 및 광고의 등장인물은 인종, 성별에 따라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다.²¹⁾ 또한 공립도서관은 신분 확인 없이도 입실이 가능하며 각종 도서, 자료, 교육용 프로그램, 그리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외국인을 위한 무료 영어 교육프로그램이 주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간편한 학교 등록 절차는 다문화 학생도 큰 불편 없이 학교에 등록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부모가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여권이나 비자 제시 없이,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예방접종 확인서와 집으로 배달된 우편물과 같은 실거주지 확인 서류만으로 학교에 등록할 수 있다. 한국과 같이 부모의 직업, 주민번호, 가정환경 등을 기록하는 서류는 없다.²²⁾ 또한 학생에게 제공하는 무료 급식과 같은

21) 2008 미국 대선에서 등장한 여성과 흑인, 그리고 최초의 흑인 대통령 당선은 이와 같은 미국 다문화 교육환경의 영향으로 볼 수도 있다.

22) 신체검사서(physical)도 제출해야 하지만 한국에서 발급 받은 신체 검사서로도 가능하였다. 또한 사회보장번호라고 하여 한국의 주민번호와 같이 성인의 신분을 알 수 있는 번호가 있지만 이를 요구

각종 복지혜택도 복잡한 서류절차 없이 신청서 제출만으로 받을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자연스러운 다문화 교육환경, 함께 어울리는 다문화 교육, 다양한 활동을 통한 다문화 교육, 그리고 ESL²³⁾과 같은 언어 프로그램은 한국의 다문화 교육 정착을 위해서 도입되어야 할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학교 교육 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배려와 인식은 한국 다문화 교육의 올바른 정착의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다문화 교육은 학생의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역할은 교사의 기본적인 책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교사는 다문화 학생의 시각에서 학교 생활 초기의 사소하고 기본적인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 능력을 지닌 교사 교육에 중요성을 언급한 장인실(2008)의 연구는 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김민화, 신혜은(2008, p. 19)에 의하면 다문화 학생들은 학교 문화에 대한 지식과 경험의 부족으로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생활 및 규칙 습득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미국 다문화 교육의 미흡한 점은 다음과 같다.²⁴⁾

첫째, 입학 초기의 다문화 학생을 위한 기본적인 학교 및 교실생활에 대한 적절한 안내가 없었다. 이로 인해 특별활동교실, 보건실, 운동장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했으며 입학 초기에는 교실수업보다는 기본적인 학교 생활의 미숙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둘째, 교실수업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사전 안내가 미흡하였다. 학습에 필요한 기본적인 준비물은 학교에서 제공해주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으나 다양한 교육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물을 가정에서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학교 및 학급 홈페이지,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기본적인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언어 및 정보 이해력이 떨어지는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세부적인 안내가 없었다. 셋째, 학교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 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자료가 없었다. 연구 결과, 다문화 학생들에게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교육 자료는 없었다. 자료는 모든 학생들에게 동등하게 제공되며 입학 초기의 다문화 학생을 위한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았다.

넷째, 비공식적이고 암묵적으로 나타나는 인종 간의 갈등이 교실수업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놀이시간에 같은 피부색을 지닌 학생들끼리 모여서 놀거나 서로 다른 인종의 학생들 간에 의미를 알 수 없는 단어, 비어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 않는다.

23) 모든 공립학교에 ESL이 개설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24)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보다 체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미국 다문화 교육이 한국 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과정에서 밝혀진 미국 다문화 교육의 미흡한 부분도 한국 다문화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결론에 포함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및 교실수업에서의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다문화 교육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다문화 학생 및 학부모와 담임교사 모두 활용 가능한 다문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미국의 다문화 교육과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를 통해 “다양한 인종, 민족, 문화, 사회 계층 출신 학생들이 학교에서 평등하게 교육받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교육사상과 특정 교수 요소를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구체적 실천 형태와 연관시키는 작업”의 필요성을 강조한 장인실(2003, p. 47)의 주장은 본 제안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여러 선행연구(장인실, 2003, 2006; 김홍운, 김두정, 2007; 권충훈, 김훈희, 2008; 박상철, 2008; 박재의 외, 2008)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일반 학생과 다문화 학생 간의 상호 이해 및 평등 관계를 중시하고 편견이나 왜곡된 점들을 인식하고 개선시킬 수 있는 지식, 태도, 가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요구된다. 또한 박상철(2008)의 주장처럼, 기존의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교육과정 재편 없이 활동중심의 다문화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문화 학생을 위한 체계적 KSL(Korean as a Second Language)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제 2언어 교육은 모어를 대상으로 하는 자국어교육과 다르게 일상적인 의사소통 능력과 문화 이해에 초점”을 두고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한 원진숙(2007, p. 40)의 주장처럼 활동 중심, 게임형식의 한국어 교재와 특별반 운영은 KSL의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 학생을 위한 언어 교육은 재미있는 놀이방식이 효과적이며 학습 결과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이를 통한 보완 교육의 중요성을 주장한 김민화, 신혜은(2008)의 연구는 본 연구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기존의 다문화 교수-학습 자료를 바탕으로 다문화 학생의 시각에 적합한 교수-학습 자료를 제작해야 한다. 일반 교과에 적용시킬 수 있는 교수전략(방금주, 김용희, 2008)이나 체험학습 프로그램, 실제적인 교수-학습 모형(권충훈, 김훈희, 2008)의 개발 및 적용을 통해 다문화 학생들이 허용적인 분위기 속에서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넷째, 다문화와 관련된 정체성 확립교육이 필요하다. 일반 학생들의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태도를 함양시키는 교육과 더불어 다문화 학생의 문화적 정체성 및 자긍심을 함양시키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오기성(2008, p. 144)의 연구는 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다섯째, 다문화 학생들의 학교 및 교실수업 적응을 위한 교사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박상철(2008, pp. 10~12)의 연구처럼, 현직교사 및 예비교사를 위한 각종 교육프로그램 및 교사 연수를 통해 다문화 학생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음을 밝혀둔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에 있는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니라 미국 교실수업을 한국 학생의 경험을 통해서 고찰하고 이를 통해 한국 다문화 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 연구이다. 둘째, 본 연구는 현재 미국 공립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였기 때문에 한국 다문화 교육현실

과 다를 수 있다. 셋째, 미국은 각 주마다 사회적 문화적 배경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특정한 주의 다문화 교육이라는 일반적 상황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이로 인하여, 본 연구를 한국 다문화 교육현실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미국의 모든 다문화 교육상황 전체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를 계기로 한국의 교실수업에서 다문화 학생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이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질적 분석, 그리고 일선 학교의 다문화 교육관계자와 담임교사 및 일반 학생 시각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 교육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 고숙희(2008). 한국의 다문화사회 진행에 따른 접근방안 모색: 한국인과 외국인 여성결혼이민자의 타도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9(1), 213-34.
- 곽준혁(2007). 다문화 공존과 사회적 통합. **대한정치학회보**, 15(2), 23-42.
- 구효진, 최진선(2007). 농어촌 다문화가정 유아의 인지적 특성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2(6), 43-67.
- 권충훈, 김훈이(2008).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경험 선정 아이디어.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8(8), 293-302.
- 김문환(2007). “다문화”,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음악과 민족**, 34, 5-12.
- 김민화, 신혜은(2008). 다문화가정 취학 전 유아 한국어교육 지원을 위한 기초 연구. **아동학회지**, 29(2), 155-176.
- 김병순(2008). 다문화가정 자녀의 유치원 생활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18, 98-138.
- 김선미(2000). 다문화 교육의 개념과 사회과 적용에 따른 문제. **사회과교육학연구**, 4, 63-81.
- 김승환(2008). 다문화주의와 문화다양성에서의 문화중. **현대문학이론연구**, 33, 113-132.
- 김연희(2007). 한국 사회의 다문화화와 사회복지분야의 문화적 역량. **사회복지연구**, 35, 117-144.
- 김영옥(2002). 유아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6(2), 5-38.
- 김완균(2008). 다문화주의시대의 문화상호적 문학텍스트 해석. **독일어문학**, 40, 27-46.
- 김현희(2007). 현대의 다문화 가족: 한국의 결혼이민 배경과 현황. **민족연구**, 31, 6-50.
- 김혜숙(2006). 교실생태학적 관점에 근거한 중등 지리수업의 질적 사례연구. 박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 김홍운, 김두정(2007). 한국 사회의 다문화 현상과 교육적 과제. **인문학연구**, 34(3), 153-176.
- 김희선(2007). 현대의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지원 현황 분석. **민족연구**, 31, 50-86.
- 김희태, 권영덕(2007). 다문화 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에의 적응과 변화 과정.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4(4), 95-117.
- 남지숙, 박주희, 정진경(2007). 다문화 아동의 적응과 언어. **2007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520-521.
- 류지현(2008). 태블릿 PC 기반의 디지털교과서 수업에 대한 교실생태학적 분석. **교육공학연구**, 24(2), 271-297.
- 모경환, 황혜원(2007). 중등 교사들의 다문화적 인식에 대한 연구-수도권 국어 사회과 교사들을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39(3), 79-100.

- 박상철(2008). 다문화 사회에서의 학교 교육과정 정책. **초등교육연구**, 21(2), 1-19.
- 박성혁, 곽한영(2008). 다문화 교육관련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교과교육학연구**, 12(3), 687-707.
- 박인우(2003). 생태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문제해결학습과 교실환경. **교육방법연구**, 15(1), 89-103.
- 박재의, 전현정, 이순옥, 김무정(2008). 다문화교육 연구학교 운영 사례 분석을 통한 교육과정 개발방향 모색. **2008한국초등교육학회학술대회 논문집**, 277- 309.
- 박준성, 정태연(2008). 한국사회에서의 다문화 가정 아동의 초등학교 적응에 관한 연구. **2008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152-153.
- 방금주, 김용희(2008). 네 가지 학습모형을 사용한 다문화 음악수업 지도방안 개발. **음악과 민족**, 33, 305-337.
- 서울특별시교육청(2007a). 함께 하는 ‘우리’ 아름다운세상. **다문화가정편견해소장학자료Ⅱ**.
- 서울특별시교육청(2007b). 즐거운 학교, 함께 배우는 한국어. **다문화가정한국어지도자료Ⅰ**.
- 서혁(2007). 다문화 가정 현황 및 한국어교육지원 방안. **인간연구**, 12, 1-24.
- 심보선(2007). 온정주의 이주노동자 정책의 형성과 변화 - 한국의 다문화 정책을 위한 시론적 분석. **담론201**, 10(2), 41-76.
- 심봉섭, 모경환, 이경수(2008). **다문화교육 담당 핵심교원 양성 프로그램 연구 개발 및 시범 연수**. 교육인적자원부.
- 양영자(2007). 분단 다문화 시대 교육이념으로서의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의 양립가능성 모색. **교육과정연구**, 25(3), 23-48.
- 오기성(2008). 학교 통일교육의 문화적 접근. **교육과정평가연구**, 11(2), 135-163.
- 오은순, 강창동, 진의남, 김선훈, 정진웅(2007).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지원방안연구(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I 2007-2.
- 원진숙(2007). 다문화 시대 국어교육의 역할. **국어교육학연구**, 30, 23-49.
- 유영만(2002). ‘학습’없는 e-Learning과 ‘지식’없는 지식경영: 지식생태학적 관점에서 다시 생 각해보는 e-Learning과 지식경영의 본질과 지향성, **교육정보방송연구**, 8(3), 45-83.
- 이민경(2007). 프랑스 다문화교육의 배경과 쟁점. **교육과정평가연구**, 10(2), 53-76.
- 이영주a(2008). 다문화가족 아동의 특성에 따른 적응요인: 위험요인과 보호요인분석. **한국가정 복지학**, 13(1), 79-101.
- 이영주b(2008). 다문화지원법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 31, 209-236.
- 이종순, 김종남(2008). 농촌 다문화 가족 보도의 프레임 연구. **농촌경제**, 31(1), 159-180.
- 이지연(2008). 미국 대학의 이러닝 수업설계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교수설계자의 역할 탐구. **교육공학연구**, 24(2), 129-151.
- 이지영(2002). 다문화교육을 통한 세계사학습의 현장사례연구. **사회과 교육**, 41(3), 109-123.

- 장인실(2003). 다문화 교육이 한국 교사 교육과정 개혁에 주는 시사점. **교육과정연구**, 21(3), 409-431.
- 장인실(2006). 미국 다문화 교육과 교육과정. **교육과정연구**, 24(4), 27-53.
- 장인실(2008).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사 교육 교육과정 모형 탐구. **초등교육연구**, 21(2), 281-305.
- 전라북도교육청(2008). 다문화가정 우리 아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요.
- 정지현(2006). 유아 다문화교육 자원으로서의 박물관 활용에 대한 기초사례 연구: 아프리카 발문관의 전시 사례를 중심으로.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3(2), 299-325.
- 정한호(2008). 교실수업에서 나타나는 이러닝에 대한 생태학적 고찰. **교육공학연구**, 24(2), 31-69.
- 조수진, 윤희원, 진대연(2008). 다문화가정자녀를 위한 “학습 한국어” 교재 개발의 방향. **이중언어학**, 37, 235-284.
- 조영달, 윤희원, 권순희, 박상철, 박성혁(2006). **다문화가정 교육지원을 위한 자료개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조영달, 윤희원, 박상철(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 교육 실태 조사**. 교육인적자원부.
- 조현미(2008). 고령군의 다문화 가정 지원현황과 과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4(4), 347-366.
- 최미숙, 김경숙, 윤현숙(2008). 다문화교육활동이 유아의 반편견 인식 및 다른 문화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17(2), 65-79.
- 최충옥, 모경환(2007). 경기도 초중등교사들의 다문화적 효능감에 대한 조사연구. **시민교육연구**, 39(4), 163-182.
- 추병완(2008). 다문화교육을 위한 도덕 교사의 역할 탐색. **교육과정평가연구**, 11(2), 109-133.
- Banks, J. A. (2001). Multicultural Education: characteristics and goals. In J. A. Banks, & C. A. M. Banks(Eds.), *multicultural educations: Issues and perspectives*(4th ed.) (pp. 1-26). Boston: Allyn & Bacon.
- Bell, L. A., & Griffin, P. (1997). Designing social justice education courses. In M. Adams, L. A. Bell, & P. Griffin(Eds.), *Teaching for diversity and social justice: A sourcebook* (pp. 44-58). New York: Routledge.
- Freire, P. (1990). *Pedagogy of the oppressed*.(M. B. Ramon, Trans.). New York: Continuum.(first publish 1968).
- Giles, H. (1998). Parent engagement as a school reform strategy.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419 031)
- Gu, Y. (2006). An ecological model of e-learning in a Chinese context: critical reflections of five years' practice of e-learning management in the BIOE, *Studies in Continuing Education*,

28(2), 99-120.

- Gurin, P., Dey, E. L., Hurtado, S., & Gurin, G. (2002). Diversity and Higher Education: Theory and Impact on Educational Outcomes. *Harvard Educational Review*, 71(3), 332-366.
- Hu-DeHart, E.(2003). The Diversity Project: Institutionalizing multiculturalism or managing differences? *Academe*, 86(5), 38-42.
- Lei, J. (2005). *Co-Evolution: The dynamics of technology uses in school*. Michigan state university. Lincoln, Y., & Guba, E.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 Lukin, R., du Boulay, B., Smith, H., Underwood, J., Fitzpatrick, G., Holmberg, J., Kerawalla, L., Tunley, H., Brewster, D., Pearce, D. (2005). Using Mobile Technology to Create Flexible Learning Contexts. *Journal of Interactive Media in Education*, 2005(22), 1-21.
- Maruyama, G., Nirebim, J. F., Gudeman, R. H., & Marin, P.(2000). *Dose diversity make a difference? three research studies on diversity in college classrooms*. Washington, DC: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and american Association of University Professor.
- Mitchell, T. R. (1999). *The changing ecology education reform in California*. Retrieved October 21, 2008, from <http://repositories.cdlib.org/uclarpa/cpo/972>.
- Odum, E. P. (1975). *Ecology: the link between the natural and the social science*. Holt, Rinehart and Winston. New york.
- Patterson, G. (2004). Harmony through Diversity: Exploring an ecosystem paradigm for higher education. *Journal of Higher Education Policy and Management*, 26(1), 59-74.
- Sleeter, C. E., & Grant, C. A. (2003). *Making choices for multicultural education: Five approaches to race, class, and gender*. New York: John Wiley & Sons.
- Smith, D. G., & Schonfeld, N. B. (2000). The benefits of diversity: What the research tell us. *About Campus*, 5(5), 16-23.
- Wise, J. A. (1999). The Ecological Approach to Text Visualiz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50(13), 1224-1233.
- Zhao, Y. & Frank, K, A. (2003). Factors affecting technology uses in schools: An ecological perspectiv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40(4), 807-840.

• 논문 접수 : 2008년 12월 29일 / 수정본 접수 : 2009년 2월 8일 / 게재 승인 : 2009년 2월 20일

ABSTRACT

Ecological Analysis of the Korean Student's Classroom Instruction Experience in American Public School

Han-Ho Jeong(Researcher, Florida State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analyze the status of the multicultural education in American public school in order to improve the Korea multicultural education. This research was an attempt to analyze the status of the multicultural education in American public school from an ecological perspective that is based on survival, harmony, and change. Diaries of participant and in-depth interviews were the key data used in the current research. 5th grade Korean student in Leon County, Florida did diaries and in-depth interviews.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features of the multicultural education in American were natural education environment and education for all people. The multicultural education becomes effective by these social influences in American public school. Especially,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program was effective not only multicultural education student, but also American students with poor writing in English. Multicultural Education was not special education but public welfare program. Through this research, it was observed that American multicultural education was made up of essential elements such as natural environment, education with the whole people, various activities, and ESL that all works together to keep society. We need practical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s like these. Especially, we need careful concern and recognition of the foreigner, which is essential condition for multicultural education. However, there was no specific information or program for multicultural student's adaptation in new school life, especially the early period of new school. These situations are full of suggestion for Korean multicultural education in school.

Key words : classroom instruction, multicultural education, teaching-learning method, ecological perspective